

# 헤일로 제작자 “공정환·하예린 출연 신의 한수”

전설의 게임 원작 ‘헤일로’ 시즌2 나와  
제작자·출연진 국내 언론 화상 인터뷰  
“하예린은 내가 만난 최고 배우 중 한 명”  
공정환 반란군 리더, 하예린은 그 딸 역

“예린씨와 정환씨를 캐스팅한 건 신의 한수였어요.”

비디오게임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헤일로》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2001년 11월 공개된 이 작품은 한 마디로 액션 게임의 전설. 343인더스트리가 내놓은 《헤일로》는 FPS(First Person Shooter) 게임. 1인칭 슈팅 게임으로 불리는 장르를 새롭게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파라마운트+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헤일로》 플레이어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2022년 3월 이 게임을 시리즈로 만들어 내었다. 제목은 역시 ‘헤일로’다. 그리고 지난 8일 시즌2가 공개됐다. 국내에선 티빙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한국 시청자 입장에서 흥미로운 건 이 작품에 한국 배우 그리고 한국계 배우가 나온다는 점이다. 많은 한국영화에서 조연을 맡았고 최근엔 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에 출연 중인 공정환과 한국계 호주인으로 ‘헤일로’가 데뷔작인 하예린이 그들이다. 최근 화상 인터뷰로 만난 제작자 키키 볼프킬(Kiki Wolfkill·55)은 공정환에 대해 “내 짝사랑”이라는 말로 애정을 드러냈고, 하예린에 대해서는 “매우 뛰어난 배우”라고 칭찬하며 그들을 캐스팅한 건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했다. 볼프킬은 이 작품 제작자이면서 동시에 게임 《헤일로》의 제작자이기도 하다. 볼프킬은 “두 부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 볼 수 없어서 아쉽다”고도 했다.

공정환과 하예린은 이 작품에서 부녀 호흡을 맞췄다. 공정환이 연기한 반란군 리더 ‘진하’는 스토리 전개상 일찍 퇴장하지만, 하예린이 맡은 ‘관하’는 주인공 ‘마스터 치프’와 함께 주요 인물 중 한 명으로 시즌2에서도 계속 활약한다. 시즌2 총괄 제작자로 합류한 데이비드 위너(David Wiener) 역시 “하예린은 내가 작업한 최고의 배우 중 한 명”이라

며 “시즌2에서 관하는 수많은 상실을 딛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말했다.

‘헤일로’는 26세기를 배경으로 유엔우주사령부(UNSC)가 우주를 정복하려는 외계 생명체 코버넌트 그리고 UNSC에서 탈퇴하려는 인간 반란군과 전쟁을 벌인다는 이야기가 바탕이 된다. 주인공인 마스터 치프는 UNSC 슈퍼 솔저의 리더로 반란군을 제압하는 데 앞장 서는 인물이지만 코버넌트 유물을 통해 잃어버린 어린 시절 기억을 되찾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다.

8부작인 시즌2는 마스터 치프가 그의 팀을 이끌고 본격적으로 코버넌트 집단의 위협에 맞서는 모습을 담는다. 마스터 치프는 코버넌트가 UNSC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이고, 그는 인류의 구원과 멸종 사이에서 해답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한다.

마스터 치프를 연기한 파블로 슈라이버(Pablo Schreiber·46) 역시 하예린을 최고의 배우라고 추어올랐다. 하예린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오랜 시간 함께 촬영하며 친해지게 됐다는 슈라이버는 “이 작품이 데뷔작이지만 그는 이미 연기력이 뛰어난 노련한 배우”라며 “우리 모두 가족을 만날 수 없으니 예린의 기운을 북돋아주며 가까워졌다”고 했다.

한국 시청자 입장에서 하예린과 공정환의 출연이 관심 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헤일로’ 시즌2는 충분히 즐길 거리가 많은 작품이다. 액션 게임이 원작만큼 화려한 액션 시퀀스는 ‘헤일로’ 시리즈의 백미다. 시즌1에선 마치 게임 화면을 그대로 구현한 듯한 새로운 액션을 선보여 화제가 됐다. 볼프킬과 위너는 한목소리로 “더 멋진 액션을 기대해도 좋다”고 했다. 위너는 “시청자가 마치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액션을 보여주려고 했다”며 “시즌1



보다 더 무섭고 더 분노적인 액션 장면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즌1에서 거대한 근육질 몸매로 화제가 된 슈라이버 역시 시즌2의 액션을 기대해도 좋다고 했다. 슈라이버는 촬영 전 시야오염과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 근육량을 최대

한 늘린 상태에서 촬영을 시작하며, 근육질 이면서도 기민한 몸놀림을 보여주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그는 “전 시즌을 발판 삼아서 더 창의적인 액션 장면을 찍었다”며 “즉각적이고 강력하고 위험한 액션을 한 가득 있을 테니 기대하라”고 말했다.



## 투모로우, 데뷔 5주년 축제 내달 8일까지 ‘드림 위크’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투모투)가 데뷔 5주년 축제 ‘2024 드림 위크(DREAM WEEK)’의 막을 올린다.

24일 공개된 ‘드림 위크’ 타임테이블에 따르면, 투모투는 이날부터 내달 8일까지 역대 팬라이브 몰아보기, 드림그래피(DREAMGRAPHY), 스페셜 클립(SPECIAL CLIP)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쏟아낸다.

팬라이브도 개최된다. 투모투는 내달 2~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2024 TXT 팬라이브 프레젠티 X 투게더’를 연다. 최초 공개 무대·특별한 추어 상기 코너·모아(MOA·팬덤명)와 멤버들의 단합력이 필요한 코너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3일 공연은 온라인으로도 라이브 스트리밍되며, 멤버십 이용자는 위버스 라이브(Weverse Live)에서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투모투는 8일엔 도쿄 가든 시티에서 현지 팬들과 추억을 쌓는다.

‘드림 위크’는 투모투가 데뷔일(3월4일)을 앞두고 전 세계 모아와 함께하는 이벤트다. 매년 콘셉트를 달리해 팬들에게 즐거움을 안긴다. 올해 드림 위크의 주요 테마는 성격도 취향도 제각각인 다섯 명이 함께 해 온 시간이다.



## 아스트로, 데뷔 8주년 기념 싱글 발매...‘서클스’

그룹 ‘아스트로(ASTRO)’가 데뷔 8주년을 기념해 스페셜 싱글 ‘서클스(Circles)’를 발매했다고 소속사 판타지오가 24일 밝혔다.

팬들 ‘아로하’에게 보내는 선물 같은 곡이다. 멤버들은 8년간 함께 걸은 팬들을 향한 애절한 고마움을 노래했다. 리더 진진이 작사, 작곡은 물론 프로듀싱에도 참여했다. ‘서클스’ 뮤직비디오엔 한자리에 모인 아스트로의 자연스러운 일상부터 녹음 현장 등이 담겼다.

아스트로는 지난 2022년 발매한 정규 3집 ‘Drive to the Starry Road’(드라이브 투 더 스타리 로드) 이후 2년여 만에 신곡을 발표한다.

아스트로는 2016년 2월 6일 그룹으로 음반 ‘스프링 업(Spring Up)’을 내고 데뷔했다. 라키가 재계약을 하지 않고 탈퇴했다. 지난해엔 문별이 하들의 별이 됐다. 현재 진진, 차은후, MJ, 윤산하 4인으로 활동 중이다.

판타지오는 “연기, 예능, 뮤지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무선 활약을 펼치고 있는 멤버들은 ‘서클스’를 통해 데뷔 8주년을 기념하고 언제나 변함없는 시너지와 새로운 시작도 함께할 미래를 약속했다”고 전했다.

뉴시스



## 홍상수, ‘베를린영화제’ 또 심사위원대상

홍상수 감독이 ‘제74회 베를린영화제’에서 신작 ‘여행자의 필요’로 은곰상에 해당하는 심사위원대상을 받았다.

24일(현지시간) 베를린영화제 경쟁 부문 심사위원단은 베를린팔라스트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홍 감독의 ‘여행자의 필요’에 이 같은 상을 전달했다.

은곰상은 최우수작품상인 황금곰상에 이은 두 번째로 큰 상이다.

5년 연속 베를린영화제에 진출한 홍 감독의 ‘여행자의 필요’는 영화제 내내 언론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수상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홍 감독의 31번째 장편영화다. 프랑스에서 은곰상 주인공이 두 명의 한국 여성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뤘다.

프랑스 간판 배우 이자벨 위페르가 주연을 맡았다. 위페르는 ‘다른 나라에서’(2012), ‘클레어의 카메라’(2018)에 이어 홍 감독과 세 번째로 작업했다. 또 이해영, 권해효, 조윤희, 하성국 등도 출연했다. 홍 감독의 연인인 배우 김민

희가 제작실장을 맡았다. 김민희는 다른 스키텔로 이번 베를린 영화제엔 동행하지 않았다.

2008년 ‘밤과 낮’으로 베를린영화제 경쟁 부문에 처음 초대 받은 홍 감독은 이 영화제의 총애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황금곰상을 받지 못했지만, 경쟁 부문에 일곱 차례 진출해 이번 포함 두 번의 심사위원대상을 비롯 은곰상의 계열을 상을 다섯 차례 받았다.

2020년 ‘도망친 여자’로 ‘제70회 베를린국제영화제’ 은곰상 감독상을, 2021년 ‘인트로덕션’으로 ‘제71회 베를린국제영화제’ 은곰상 각본상을 차지했다. 2022년 ‘소설가의 영화’로 은곰상 심사위원대상을 받았다. 홍 감독의 연인 김민희가 ‘밤의 해변에서 혼자’(2017)로 은곰상 여우주연상을 받기도 했다.

한편, 김혜영 감독의 장편 데뷔작인 영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는 어린이 심사위원단이 뽑은 수정곰상을 차지했다. 영화 ‘다호메이’의 프랑스 감독 마티 디오프가 황금곰상을 받았다.

## 프로듀서 겸 작곡가 신사동호랭이 ‘영면’

프로듀서 겸 작곡가 신사동호랭이(41·이호양)가 영면에 들어간다.

25일 소속사 티알엔터테인먼트 등에 따르면,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신사동호랭이의 발인식이 엄수된다. 고인은 지난 23일 자신의 작업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복 포항 출신인 신사동호랭이는 아이돌 가수를 꿈꿨다. 2005년 더 자두의 ‘남과 여’를 작곡하면서 작곡가로 데뷔했다. 예명은 자신의 게임 아이디에서 따왔다.

특히 2세대 K팝 그룹들의 히트곡을 다수 만들었다. 비스트 ‘픽션’, 포미닛 ‘하트슈’ 티아라 ‘롤리폴리’, 에이핑크 ‘노노노’, 이엑스아이디(EXID) ‘위아래’, 모모랜드 ‘뽀뽀’ 등이다. 한 때 저작권료 수입 최상위 명단에 들었다. 2013년



제5회 멜론뮤직어워드 송라이터상을 받았다. EXID는 신사동호랭이가 제작한 팀이다. 이 팀을 제작하면서 바나나킥(전신 AB엔터테인먼트)을 운영했다. 17억원의 빚이 있던 2017년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이듬해 이 신청은 인가됐다. 당시 사업을 하는 지인으로부터 채무가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 NCT 위시, 365일 듣고 싶은 행운의 주문



한국계 배우 스티븐 연(40)이 미국 배우조합 상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스티븐 연은 25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제30회 배우조합상(SAG) 시상식에서 넷플릭스 ‘성난 사람들’(원제 BEEF)로 TV영화·미니시리즈 부문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지난해 골든글로브와 에미상, 크리틱스초이스에 이어 미국 주요 시상식 4개 모두 석권했다. 이날 성년 사람들에서 활약한 엘리 워(41)는 여우주연상을 안았다.

스티븐 연은 “이 일을 반대하지 않은 어머니, 아버지가 감사드린다”며 “이 자리에 서게 돼 영광”이라고 밝혔다. 연기 코치 데브라를 언급하며 “매년 내가 ‘넌 이해 못 해. 이걸 아주 한국적인 것 같아’라고 말할 때마다 그는 ‘아니, 그건 우리 모두가 겪는 일이야’라고 했다. 내겐 정말 중요한 의미였다”고 했다.